

2/26/23

설교 제목: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엘 1 장 1-20 절

(을 1:1)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절관주** 행 2:16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애곡

(을 1:2)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나

(을 1: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절관주** 출 10:2, 시 78:4

(을 1:4)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을 1:5)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절관주** 사 32:10

(을 1:6)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으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절관주** 계 9:8

(을 1:7)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굶어 말갹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을 1:8)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굶은 베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절관주** 잠 2:17

(을 1:9)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을 1:10)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을 1:11)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으로다 **절관주** 렘 14:4

(을 1:12)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 (을 1:13) ○제사장들아 너희는 굶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굶은 베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 (을 1:14)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 (을 1:15)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 (을 1:16)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 (을 1:17)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 (을 1:18) 가축이 울부짖고 소 떼가 소란하니 이는 풀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 (을 1:19)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 (을 1:20)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타음이니이다 **절관주** 욥 38:41, 왕상 17:7

온 세계가 지난 2 월 6 일 터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을 보고 참담해
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7.8 이었으며 이제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는 약 4 만 7000 명입니다.

20 일 터키와 시리아에 또 다시 규모 6.4 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에 추가 사망자가 1 천명 가량
늘어 났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진으로 인한 터키와 시리아의 사망자는 현재 4 만 8 천명을 넘기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피해 현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터키 하타이 지역에선 건물 한 동 전체가 순식간에 먼지로 변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건물
1200 채가 붕괴 되었습니다.

건물들은 종이 상자같이 포개져 무너져 내렸으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끼어 처참하게 죽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지켜볼 뿐 그들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켄데룬 지역 항구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아비규환입니다.

전 세계가 애통해하며 이들을 돕고자 구조 대원들과 구호 물자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들이 근본적인 구원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지진이 도화선이 되어 이 지진대에 속한 지역에서 연달아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와 그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눅 21:10)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눅 21: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눅 21:12)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눅 21:13)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마지막 때에는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 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 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으며, 타이완과 남중국 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진 소식이 들려 옵니다.

21 세기에 발생한 지진 중 기억나는 것만 해도 2004 년 인도양에서 일어난 규모 9.1 지진 (약 22 만 5000 명 사망), 2008 년 중국에서 일어난 규모 7.9 지진 (약 9 만명 사망), 2010 년 아이티에서 일어난 규모 7.0 지진 (약 30 만명 사망), 2011 년 일본에서 일어난 규모 9.0 지진 (약 1 만 8500 명 사망) 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경종도 울립니다.

이를 미리 예측한 억만장자 빌 게이트는 이미 어마어마한 농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밀 곡창 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밀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밀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5G 전자파로 말미암아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분 활동을 하는 꿀벌들이 사라지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인류는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Covid-19 으로 인해 2020 년 세계 보건 기구 WHO 에서 팬데믹을 선포한지 3 년이 되었습니다.

2023 년 2 월 13 일까지 집계된 Covid-19 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690 만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가장 핍박을 받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상인양 보이지 못하게 하여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레오 달리오의 조연대로 금과 은을 보유하면 될까요?

빌 게이츠처럼 농지를 구매하면 될까요?

아니면 억만 장자들이 하는 것처럼 지하 병커를 파고 그곳에 물과 식량을 비축해 놓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

본서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발생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여호와의 날' 곧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날은 그들이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면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아니할 경우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본서를 기록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정황 상 남 유다 8 대 요아스 (BC 835-796 년) 왕의 통치 초기인 BC 835 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아스 왕은 BC 835 년 아달라가 권좌에서 쫓겨난 후 법적 왕위 계승자 신분으로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아직 어렸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 아래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을 받던 통치 초반부에는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었으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은 1 장 1 절부터 2 장 17 절까지로 메뚜기 재앙과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2 장 18 절부터 끝까지로 회개를 통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남 유다에 재난이 덮쳤습니다.

메뚜기 떼가 검은 구름과 같이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푸른 것들은 사라지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드러냈습니다.

이때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욘 1:1)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 요엘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의 아버지 이름 '브두엘'이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 요엘의 가문이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브두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현재 유다 땅에 발생한 메뚜기 재앙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 온 땅을 휩쓸고 다니며 식량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을 1:2)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을 1: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을 1:4)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늙은 자들아’는 장로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에 이같은 재앙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팔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가잠’ ‘아랍베’ ‘알레크’ ‘하실’을 번역한 것으로 ‘가잠’은 자르다, ‘아랍베’는 많은 떼, ‘알레크’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 ‘하실’은 끝장을 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지칭한 것은 포악한 메뚜기 떼가 덮친 것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빚어진 참상입니다.

(을 1:5)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을 1:6)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을 1:7)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굵어 말갹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깨어 울지어다, 울지어다르 반복함으로써 당시의 비참한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 왔음이로다’고 메뚜기 심판 보다 더 진전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포도 나무와 무화과 나무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포도 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내 포도 나무' '내 무화과 나무'라고 하시며 애착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당면한 재앙 앞에서 애통해하라고 하십니다.

(을 1:8)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굶은 베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유다 백성들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을 1:9)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을 1:10)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재앙으로 말미암아
곡식과 포도주, 기름이 떨어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 부끄러워하고 곡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굶은 베를 동이고 슬피 울고,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굶은 베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우라고 하십니다.

(을 1:11)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을 1:12)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을 1:13) 제사장들아 너희는 굶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굶은 베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또 제사장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을 1:14)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여호와와 날'이 도래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을 1:15)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날' '여호와와 날'은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날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최후 심판의 날' 곧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 '여호와와 날'은 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을 1:16)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을 1:17)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으로다

(을 1:18) 가축이 울부짖고 소 떼가 소란하니 이는 풀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 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을 1:19)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을 1:20)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이 2월 21일 동성 부부를 사실상 합법화 했습니다.

서울 고법에서 남자 동성애자 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현행법 상 동성간의 혼인을 사실혼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깨고
동성애자 커플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이제는 '그날' '여호와와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바로 턱 앞에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